

이차전지

Sector Issue Brief

2026. 9. 1

Check Point

- BESS 포함 신규 미 행정명령
- FEOC, 중국산 추가 관세 영향 상반기 낮아
- 북미 ESS 중국 M/S 서서히 하락할 듯

이번 행정명령, '29년 물량 전후 서서히 영향 미칠 듯

| Analyst 정경희 | khchung@ls-sec.co.kr

미 트럼프 대통령 일부 외국산 전력 장비 수입 금지 내용을 포함한 행정 명령 서명

지난 26일(현지시간) 미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인프라가 외부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취지로 국가 전력망 보호를 위해 일부 외국산 전력 장비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행정명령에 서명

행정 명령 내용은 1) 미국 전력망의 사이버 보안 및 운영상 리스크 차단 목적의 국가 비상 사태 선포로 2) 우려외국집단(Covered Foreign Entities)과 연계된 해외 생산 전력 장비의 반입·설치 통제. 이에에는 고압 송전선, 변전소, 발전소 등에 사용되는 특정 수입 부품의 구매, 수입, 설치 등을 금지 포함. 배터리와 관련한 적용대상은 대형 BESS(대규모 전력망과 연계되거나, 이에 속하는 BESS)로, 제외 사항은 1)국가 안보 위협과 무관한 지역 단위 배전 시설, 2)대용량 전력 계통의 국가 안보 위협과 관계없는 범용 장비로 밝힘

단, 여기서 '대형 BESS' 적용 기준이 물리적 배터리 용량(MWh) 수치로 구분되지 않음. 미국 벌크-전력 시스템(BPS)과의 연계성 및 전압 기준(69kV 이상 송전 네트워크)을 기준으로 판정, 국가 안보 관련 등 애매한 부분 있어. 향후 정확한 적용범위 확인해야

FEOC, 추가 관세(25%)에도 상반기 북미 ESS 중 중국 M/S 76%

'26년부터 적용된 FEOC(*)와 중국 배터리 추가 관세 25%로 한국 ESS 시장 기대. 그러나 '26년 상반기 북미 ESS 출하량에서 중국 M/S는 76%로 여전히 높은 수준. 1)IRA와 FEOC 규정이 '26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프로젝트부터 적용, 이전 계약을 마친 프로젝트들은 Safe Harbor 조항 적용되기 때문. 2)IPP나 빅테크 DC 중 일부는 ITC를 포기하고 여전히 저렴한 중국산을 선택. 또한 3) C&I, 민간 Grid에서 연방 보조금 직접 통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거나, SI들은 셀 원산지와 통합 분리. 이에 따라 '26년 상반기 북미 ESS 출하량 중국산 대부분. '25년 선주문 가능성 높아, '28~'29년 제철 프로젝트 물량 상당부분 해당 예상. 최근 발표 ESS 수주는 '29년 전후 물량으로 이를 반증

(*FEOC: 연방 세액 공제를 받는 미국 청정에너지 공급망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정부와 연계된 기업들의 참여를 금지하는 것으로 OBBBA는 '25년 12월 31일 이후 건설을 시작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제 45Y조 및 제 48E조에 따라 규제 범위를 계통 규모(Grid-scale) BESS까지 확대하였음. 에너지부(DOE) 지침은 정부 지분, 의결권, 또는 이사회 자리의 25%를 기준으로 분류를 설정하며 계약 관계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Effective Control)' 조항을 둠)

이번 행정 명령(EO 14420), 다를까

장기적으로 69Kv 이상 송전망에 연계되는 대용량 전력망에 연계되거나 이에 속하는 대형 BESS 대상. 국가 안보 위협과 무관한 지역단위 혹은 범용장비 제외. 그러나 FEOC 예외 조항으로 허가받은 프로젝트들에 대한 적용 확인해야. 중대형 유틸리티 시장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산 배터리 셀 점유율 하향 요인이나 선구매량 감안시 서서히 진행되고, 민간·C&I, IPP중심 독립형 프로젝트에서 중국산 점유율 유지할 듯. 120일 유예 및 과도기 감안, '26년 북미 중국 M/S 70%대 유지될 듯, 이후 서서히 하락 예상. 동시에 배터리 비용 부담으로 중단기 Utility-grid 수요성장을 둔화 가능성 제기 예상.

한편 북미시장에서 OEM, Panasonic, FEOC 우회 중국 셀 물량으로 한국포함 비중국 ESS 물량 증가 예상

표1 미국 대용량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행정명령 명칭	미국 대용량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to Secure the United States Bulk-Power System)
서명일시	2026년 8월 26일(현지시간)
근거 법률	국제비상경제제한법(IEEPA), 국가비상사태법(NEA)
주요 목적	1) 국가 전력망에 외국산 장비가 초래하는 사이버 공격 및 공급망 위험 방지 (사실상 중국산 전력 장비 겨냥) 2) 우려외국집단(Covered Foreign Entities)과 연계된 해외 생산 전력 장비의 반입·설치 통제
규제 대상 국가 및 기업	미국의 무기 금수·제재 대상 국가, 국가안보 및 외교 정책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된 국가나 기업
적용 범위(장비)	1) 69kV 이상 송전망, 변전소, 발전소, 전력 제어실 장비 2) 변압기, 고압 차단기, 발전 터빈, 대규모 배터리 ESS(대용량 전력망과 연계되거나 이에 속하는 대형 BESS) 3) 태양광 등 전력망 연계형 인버터, 무정전 전원장치 4) 계량·보호장비, 산업제어시스템 및 관련 소프트웨어·펌웨어·디지털/유지보수 서비스
제외 대상	1) 국가안보 위협과 무관한 지역 단위 배전 시설 2) 대용량 전력 계통의 국가 안보 위협과 관계없는 범용 장비
'대형 BESS'적용 기준	1) 물리적 배터리 용량(MWh) 수치로 구분하지 않음 2) **미국 벌크-전력 시스템(BPS)과의 연계성 및 전압기준(69Kv 이상 송전 네트워크)을 기준으로 판정
적용 시점 및 소급 여부	1) 8월 26일 이후 새로 시작되는 거래 금지 또는 조건 부과 2) 이미 설치되었거나 과거에 반입된 설비도 리스크 판정시 에너지부 장관이 식별, 격리, 감시, 접속 차단, 교체 또는 철거 명령 가능 (안정성 고려해 단계적 조치)
향후 일정	1) 120일 이내('26년 12월 24일까지): 미 에너지부(DOE)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규정 마련 예정 2) 180일 이내: 연방정부 에너지 인프라 조달 시 미국산 장비 우선 구매 방안 제시

자료: 언론 등,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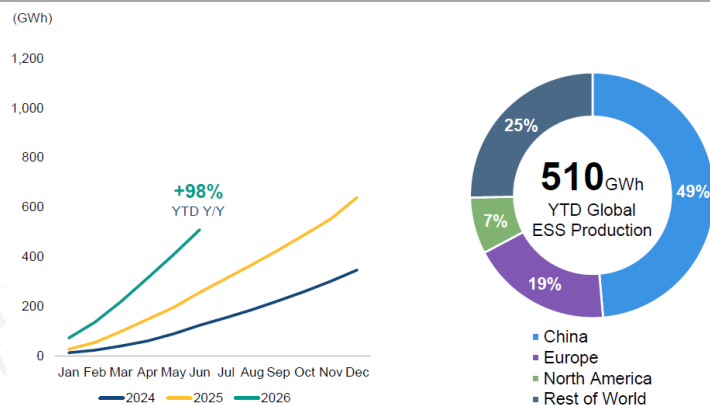
상반기 북미 ESS 생산량, 출하량, 채택량

산업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글로벌 ESS 및 EV용 배터리 생산량은 각각 510GWh로 ESS 생산량이 처음으로 EV용 생산량과 동일한 규모로 성장했다. 이중 지역별 생산에서 북미는 전체의 약 7%로 약 36GWh가 북미에서 생산된 것으로 나타난다.

생산량은 제조사가 ESS 셀을 생산한 양, 출하량은 제조사가 고객에게 인도한 판매량, 적용량은 고객이 프로젝트에 연결한 양이다. SNE에 따르면 배터리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에 탑재되는 전기차와 달리, ESS배터리는 지역별 프로젝트에 직접 설치되기 때문에 출하량과 실제 설치 용량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북미의 경우 '25년 출하량과 채택량의 차가 증가했고, 이는 FEOC, 추가 관세 등을 앞둔 선재고로 볼 수 있다. 상반기 기준 수치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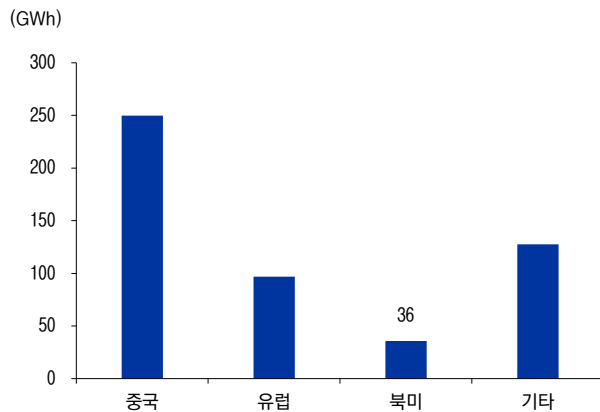
- 1) 상반기 북미 출하량 = 76GWh
- 2) 상반기 북미 ESS 생산량 = 36GWh, 즉 최소 수입량=40GWh, 대부분 중국추정
- 3) 상반기 북미 ESS 채택량 = 40GWh(추정치), 고객에 쌓인 재고 약 36GWh 추정
- 4) 북미 생산 36GWh 중 LGES, SDI, Others 제외 최소 17GWh 어디서 나타났을까?
현재 중국 배터리사 중 북미에 ESS 셀 Capa를 공식적으로 보유한 회사는 없으므로, 상반기 집계 76GWh에 잡히지 않은 ESS 현지 생산량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에 Tesla, Panasonic, 엔비전 AESC(일본계-중국 자본 혼합)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 5) 글로벌 리튬생산사인 미국의 Arbemarle에 따르면 북미 OEM들이 EV라인은 ESS 라인으로 전환하고 있다. 실제로 GM은 지난 7월 CEO인 Marry T. Barra가 Sodium-ion Battery에 투자, '27~8년경 양산을 발표했다. 약 20~28GWh의 ESS Capa가 예상된다. Ford의 경우 자회사 Ford Energy가 '27년 ESS Capa를 20GWh로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프랑스 전력회사인 EDF의 북미 법인에 약 20GWh를 수주한 것으로 발표했다. VW Group은 '30년경 성장축의 하나로 ESS를 추진하고 있다. Panasonic 역시 캔자스에 지은 No.2 공장(35GWh)의 일부를 ESS로 전환할 것으로 발표했다.

그림1 상반기 글로벌 ESS 생산량, 북미 생산량 약 36G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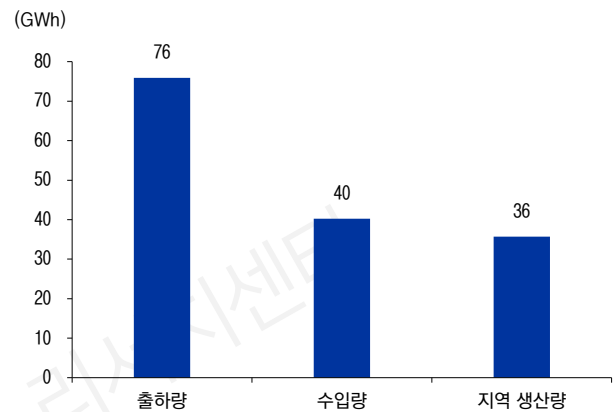
자료: 산업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1H26 글로벌 지역별 ESS 생산량



자료: 각 사, 언론 보도,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1H26 북미 출하량, 생산량, 수입량



자료: 각 사, 언론 보도, SNE Research, LS증권 리서치센터

상반기 FEOC 및 중국 ESS 추가 관세에도 M/S 76%

올 1월 1일부터 적용된 중국산 비EV배터리(ESS용 배터리 등)에 대한 미국 대표부(USTR)의 제 301조(Section 301) 추가 관세 인상 확정 발표와 FEOC(우려외국집단) 관련 규정이 발표되었고 한국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미국 시장이 EV배터리에 이어 ESS에서도 중국산을 실질적으로 배제하게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중국산 비EV 배터리 추가 관세(25%인상)은 '24년 9월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의 4년차 검토 최종 결과 발표에서 나왔다. 해당 조항에 따라 비EV향 배터리는 유예 기간을 거쳐 '26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25%로 인상되어 적용되기 시작했다. 최초 정책 제안 및 방향성은 '24년 5월에 발표되었다.

배터리 및 청정에너지 분야의 FEOC(우려외국집단) 규정은 미국 의회 및 재무부(IRS)를 통해 다듬어져 왔으며, 핵심적인 법적 근거와 집행 기준은 '25년 7월 관련 입법(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통해 확정 발표되었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이행 가이드라인은 (Notice 2026-15 등)이 올해 2월에 추가로 발표되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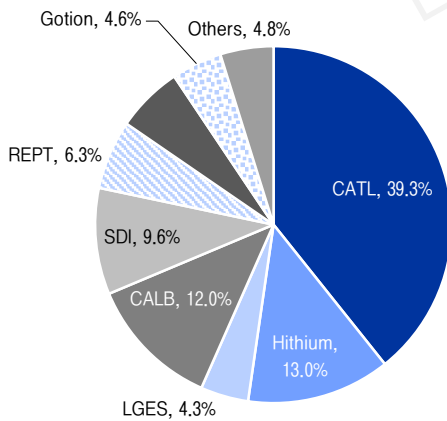
FEOC의 주요 내용은 청정에너지 및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정부 및 이들의 관리를 받거나 지배력(25% 이상의 지분·의결권 등)이 미치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우려외국집단(PFE)의 자재나 부품이 일정 수준 이상 포함될 경우 세액 공제(ITC) 자격 박탈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의 분야에서 '26년부터 최소 55% 이상의 비 FEOC 자재 비율을 충족해야 하며, 매년 5%씩 인상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FEOC에 따라 중국 M/S가 급락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했지만 상반기 중국 M/S는 적어도 76%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세법(ITC/PTC 등)에서 프로젝트의 '공사 착공일(Beginning of Construction, BOC)'을 '25년(또는 특정 기준일 이전)의

로 인정받아 기존 규정(또는 유예 혜택)을 적용받으려는 이른바 '착공 세이프 하버 (Construction Safe Harbor)' 전략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즉 미국 국세청(IRS)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개발사가 1) 전체 예상 총 비용의 5% 이상을 '25년 내에 지출하거나 발생 시키거나, 2) 현장 또는 공장에서 유의미한 물리적 공사(Physical Work Test)를 '25년까지 개시한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25년(또는 그 이전)에 착공된 것으로 인정받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셀을 구입에 대한 제약이 낮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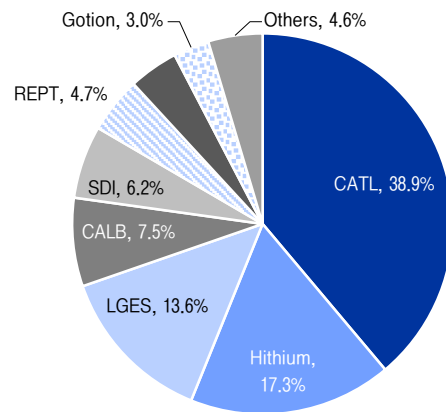
북미의 경우 향후 2~3년 필요량이 '25년내 상당 규모로 선주문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FEOC와 추가 관세에도 불구하고, 인도량(출하량) 기준 '26년 상반기 중국 셀이 최소 76%를 차지하는 이유로 판단한다. ESS의 경우 계획에서 운영이 플랜트 기준 2~3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28년까지 선주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그림 4 1H25 북미 ESS 회사별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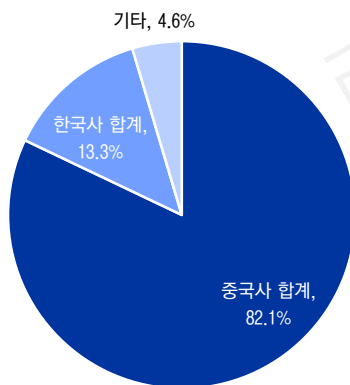
자료: SNE Research,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FOEC, 추가 관세에도 1H26 높은 중국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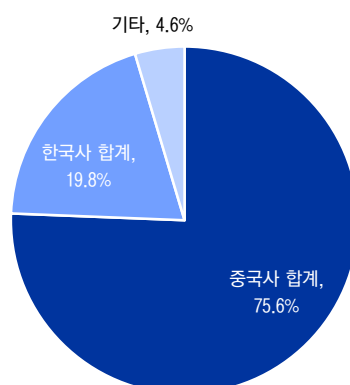
자료: SNE Research,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1H25 북미 ESS 국가별 출하량



자료: SNE Research,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1H26 북미 ESS 국가별 출하량



자료: SNE Research, LS증권 리서치센터

제안 프로젝트 기반 중국산 구매량 추정

EIA, IEA 등에 따르면 '26년과 '27년 완공예정인 미 중대형 프로젝트들은 각각 최대 배터리 68GWh가 소요될 것으로 나타난다. 선진국의 프로젝트 계획부터 운영까지 약 2~3년이 소요되는 점, 미국의 경우 FEOC, 추가 관계 등으로 공사착공일에 따른 예외 조항을 적용 받기 위해 '25년 하반기 서둘러 프로젝트를 제출, '26년 상반기 중국 M/S가 76%나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7년뿐 아니라 '28~'29년 Project들의 경우도 중국산 ESS 선주문이 발생했을 것으로 본다.

BESS 전체 비용에서 가장 높은 배터리셀(52%)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이 트럼프 2기와 함께 강경 대중국 무역 정책들이 예상되는 가운데 디벨러퍼의 경우 비용 감소 전략으로 추진된 것으로 판단한다. 유사한 사례가 '23년 태양광에서도 나타났다. 당시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입 장벽이 강화되자, 이를 시행하기 전해 대규모 재고를 고객사들이 쌓은 바 있다.

'26년과 '27년 가동하는 프로젝트들의 셀이 대부분 선주문하였을 것으로 보고, 현재 제출된 프로젝트들의 연도별 운영 시기는 아래와 같다. 따라서 상반기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소 17GWh 외에도, 향후 상당부분 중국셀에 대한 선주문이 있었다면 이는 예외조항에 해당하므로 행정명령이 이를 얼마나 제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그림 8 기제출된 중대형 프로젝트들 가동시작연도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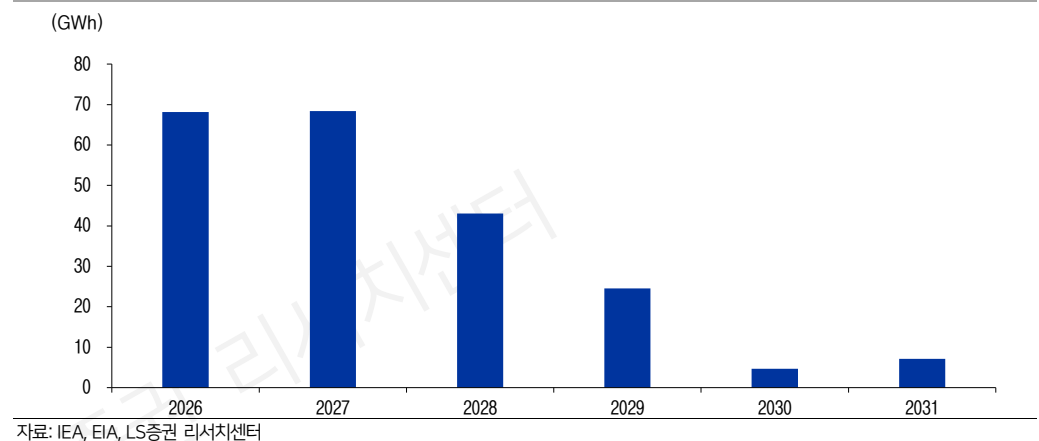


표2 2분기 실적발표에서 주요 OEM 들 ESS 투자 언급

일자	기업	발언자	내용
07월 21일	GM	메리 바라 (CEO)	Peak Energy와 Sodium-ion 기반 ESS 개발 추진 Sodium-ion의 LFP 대비 비용 경쟁력과 원재료 측면의 장점을 강조, 2027~28년 생산 검증 셀 생산 및 2020년대 말 이전 양산을 목표
		폴 제이콥슨 (CFO)	EV 수요 변화에 맞춰 JV 파트너와 배터리 공급망 규모를 조정 중 Peak Energy 협업을 통해 대규모 자체 공장 투자보다 자본효율적인 배터리 기술 확보를 추진
07월 23일	Tesla	일론 머스크 (CEO)	Megapack 3 생산을 준비 중이며, 배터리 셀 증산 및 리튬·양극재 정제시설 가동을 통해 배터리 공급망 내재화 확대 AI 데이터센터·전력망 안정화에 따른 Megapack 수요 증가 전망
		바이바브 타네자 (CFO)	2Q26 ESS 설치량 13.5GWh(+53% QoQ) 기록 견조한 수주잔고와 데이터센터·전력화 수요에 대응해 ESS 생산능력을 확대 중, 2026년 초 LFP 공장 가동 시작
07월 24일	Volkswagen	올리버 블루메 (CEO)	그룹의 2030 전략에서 Energy Storage를 미래 성장 기술 영역 중 하나로 제시
		아르노 안틀리츠 (CFO)	PowerCo의 Salzgitter 셀 공장 Ramp-up과 Valencia 및 St. Thomas 공장 건설 지속
07월 28일	Mercedes-Benz	올라 칼레니우스 (CEO)	배터리 사업 관련 직접적인 신규 전략 언급은 제한적 2세대 BEV 판매 증가 및 하반기 EV 생산 확대 계획을 언급
07월 29일	Ford	제임스 D. 팔리 (CEO)	Ford Energy를 ESS 핵심 성장사업으로 육성하며, 2027년 말 연간 20GWh 생산능력 목표, 추가적인 Upside도 가능하다고 언급 LFP Prismatic Cell 기반 20ft Container ESS를 공급하고 기존 생산시설을 활용해 CAPA 확대 추진
		셰리 하우스 (CFO)	BlueOval SK 배터리 JV 재편/처분 관련 일회성 비용을 반영하는 한편, Ford Energy 및 차세대 EV 사업에 추가 투자를 진행할 계획
07월 31일	Rivian	RJ 스캐린지 (CEO)	Amazon EDV용 기존 Standard Battery Pack 외에 대용량 배터리팩과 AWD를 적용한 신규 모델을 개발 중

자료: 각사,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정경희).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15% 이상 기대	90.3%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15%로 변경
		Hold (보유)	-15% ~ +15%	9.7%	
		Sell (매도)	-15% 이하 기대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5. 7. 1 ~ 2026. 6.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